

# 호치민 출장안내자료

2017. 2

KOTRA  
호치민무역관

# 목 차

- I. 국가개요
- II. 정치 · 사회동향
- III. 한국과의 주요이슈
- IV.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 V. 한국과의 교역 동향 및 특징
- VI. 투자환경
- VII. 투자 입지여건
- VIII. 기타 유용한 정보

**Clean KOTRA, 고객과 함께**

투명한 경영, 바른 경영으로 한 발 앞서가는 kotra가 되겠습니다.

# 베트남 안내자료



## I. 국가개요

### □ 일반개황

국가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수도	하노이
면적	330,967 km <sup>2</sup> (한반도의 약 1.5배) 남북 1,700km, 해안선 3,200km
인구	9,270만명(2016년말 기준, 베트남 통계청)
연간 인구 증가율(2016)	1.08% (2015년 대비)
남녀 성비	49.4(남) : 50.6(여)
행정구역	5개의 중앙직할시와 58개 성으로 구성
5개 중앙직할시 (2015)	호치민(815만명), 하노이(722만명), 하이퐁(196만명), 껀터(125만명), 다낭(103만명)
공용어	베트남어
인종	킨족(Kinh, 전인구의 85.72%) 등 54개 민족
종교 (2013)	종교 인구 약 2400만명 중 불교(45.8%), 카톨릭(27.1%), 개신교(6.3%), 기타 (20.8%) 등
기후	북부 아열대성, 남부 열대몬순
시차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 + 7시간)
한.베수교일자	1992.12.22
화폐단위	베트남동(VND, Vietnamese Dong)
환율	1US\$ = 22,813 VND(2017.02.20일 시중은행 매매 기준)
정치제도	베트남 공산당 1당 체제
당서기장	Nguyen Phu Trong(응웬 푸 쩡)
국가주석	Tran Dai Quang(쩨 다이 꾸앙)
총리	Nguyen Xuan Phuc(응웬 쑤언 폭)

## □ 베트남 역사

시 기	기 간	비 고
1차 중국지배	B.C.111 - AD 972	- 중국 한나라에 복속 - 쩡 자매 봉기
전기 Le(레, 黎)왕조	980 - 1009	- Le Hoan이 송나라를 물리치고 건국
Ly(리, 李) 왕조	1009 - 1225	- 최초의 자주국가 - 이 용상 왕자 고려로 망명. 화산이씨 시조
Tran(쩐, 陳) 왕조	1225 - 1400	- 몽고침입 격퇴
후기 Le(레, 黎)왕조	1427 - 1789	- Le Loi가 명나라를 격퇴하고 건립
남북 분립기	1789 - 1801	- 북 Trinh(쩐, 鄭)씨와 남 응원(nguyen, 阮)씨 대립
응원(nguyen, 阮)왕조	1802 - 1859	- 현재의 베트남 영토 확정
프랑스 식민시대	1859 - 1954	- 아르망조약으로 프랑스 보호국으로 전락
대미 항쟁시대	1954 - 1973	- 파리평화협정(종전) - 호치민 사망(1969)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1973 - 현재	- 도이머이정책(1986)

## II. 정치 · 사회동향

### □ 기본 정치체제

- 사회주의 공화제를 국체 및 정체로 함
-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세력, 국회는 국가 최고권력기관, 국가주석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는 국가 최고행정기관 이라고 헌법에 명시됨

## □ 최근 정치동향

- 1986년부터 추진한 도이머이(刷新)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개혁·개방을 통한 국가발전을 지속 추진
- 공산당 지배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체제안정을 위한 국민화합 및 경제개혁을 가속화
- 부정부패 척결 지속 추진 및 개혁개방 부작용 해소 노력
  - 개혁개방 추진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당원 및 관료의 부정부패, 각종 범죄 확산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하여 ‘부패방지법’ 제정 등 부패척결을 강조
  - 농촌 및 소수민족 등 경제발전 소외계층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농촌개발, 빈곤퇴치, 소수민족 배려정책 등을 적극 추진
- 제 11차 공산당 전당대회(2011. 1.11-19)에서 2011년-2016년 기간 중의 경제 및 사회분야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개발계획을 인준(전당대회는 5년마다 개최)
- 2016년 제 12차 공산당 전당대회 개최 후 정부 주요 인사 선출

### < 베트남 2016 ~ 2020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 >

경 제 분 야	사 회 & 환 경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장율: 6.5-7%</li> <li>○ 2020년 1인당 GDP : \$3200~3500</li> <li>○ 2020년 산업분야와 서비스분야 GDP 기여도 : 85%</li> <li>○ 2020년 정부예산 기준 : GDP 전체의 4% 이하</li> <li>○ 사회노동생산성 연평균 5% 성장</li> <li>○ 2020년 도시화 비율 : 38~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농업종사자 비중 : 총 사회근로자의 40%</li> <li>○ 2020년 숙련공 비중 : 65~70% 이 중 25% 학위, 자격증 소지</li> <li>○ 2020년 도시지역 실직률 : 4%</li> <li>○ 빈곤 가정 감소율 : 연 1~1.5%</li> <li>○ 2020년 위생용수 공급률 : 도시 95%, 농촌 90%</li> </ul>

(자료원: 베트남 MPI 국회제출 초안)

## □ 대외관계

-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자국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개방·개혁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개방적인 외교기조를 유지
- ‘독립, 자존, 평화, 협력, 발전’과 ‘개방, 다양화, 다변화’라는 기본원칙하에 중국, 북한은 물론 미국 EU 등 모든 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
- 적극적인 다자외교 전개
  - 1995. 7           ASEAN 가입
  - 1998.11          APEC 가입
  - 2007             WTO 가입
  - 2008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피선
  - 2010             ASEAN 의장국 수임
  - 2017             APEC 정상회담 베트남 개최 예정

## □ 사회적 특징

- 근면, 성실, 인내를 갖춘 민족으로서 외세에 굴복하지 않은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함
-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매우 활발한 사회임
- 6성조를 가진 베트남어가 공용어이며, 중국의 영향을 받아 한자를 표기에 사용했으나 8세기경 한자의 뜻과 음을 차용해 만든 쓰놈(Chu Nom)을 만들어 이용함. 18세기 말경 예수회 사제들이 쓰놈을 알파벳으로 옮겨 쓰면서 오늘날의 베트남 문자가 일반화됨
- 공산주의 사회임에도 국민들의 종교 활동을 용인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 도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은 미신적 요소가 상존
- 전국에 450개이상의 언론매체 및 560종의 인쇄매체가 발행되며, 국영 베트남 TV 이외에 각 성별로 자체방송국을 운영.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언론국)에서 인·허가 및 검열업무를 관장

### Ⅲ. 한국과의 주요이슈

#### □ 구 월남 정부와의 관계

- 월남전에 총 6차례에 걸쳐 31만여 명 파병
- 월남 공화국 폐망에 따라 1975년 4월 30일 대사관 철수

#### □ 베트남 정부와의 관계

- 1992년 4월 : 양국 연락대표부 설치 합의
- 1992년 8월 : 주 베트남 연락대표부 설치
- 1992년 10월 : 주한 베트남 연락대표부 설치
- 1992년 12월 : 외교관계 수립 및 대사관 설치
- 1993년 11월 : 주 호치민 총영사관 설치

#### □ 경제협력관계

-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이 늘어나고 경제·문화·예술행사를 장애 없이 교환하고 있음
- 2009년 베트남 수상의 제의로 양국은 경제파트너를 뛰어넘어 정치·외교적 우군을 의미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음
- 베트남은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면서도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 중임
- 한국기업의 노동력 공급원이자 현지 생산기지로서 베트남의 중요성은 크게 확대되고, 문화측면에서는 <韓流>의 확산거점으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
- 2015년 12월 20일 한·베 FTA가 공식 발효되어 양국의 무역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 친한정서 및 다문화 가족문제

- 화산 이씨 등 역사적 유대감, 한류열풍 등으로 한국 및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음
- 최근 다문화가족 문제 등으로 청년층에서는 反韓정서의 조성가능성도 있음



## IV. 경제동향 및 전망

### □ 최근 경제동향

- 베트남 경제 회복세, 거시경제 안정화, 반면 대외 의존도 여전히 높아
  - 2015년 베트남 GDP 성장률은 6.68%로 지난 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경제가 다소 회복되었지만, 2016년 GDP 성장률은 6.21%에 머무르며, 연초 목표(6.7%)에 못 미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
  - 하지만 이러한 성장 결과는 세계 경제침체와 이상기후, 해양환경파괴 등 국내외 정치·경제적으로 '다산다난'한 한 해를 보냈던 것에 비해 고무적 성과로 평가
  - 더불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물가와 환율은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 베트남 정부의 물가 및 외환시장 관리능력에 대한 신뢰도는 한층 증가
  - 반면, 대내외 변수의 불확실성의 고조 및 높은 대외 의존도는 베트남 경제 성장 기조 유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
  - 2016년 베트남 GDP 대비 수출액 비율은 85%를 상회, 수출 의존적 성장 경향은 심화 되었고, 수출 의존도 또한 매년 증가 추세
  
- 2017년 베트남 경제성장에 대한 대내외 시각은 낙관적
  - 지난해 베트남 경제성장의 제약요인 해소 및 완화에 따라 2017년 베트남 경제를 바라보는 내부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해외 전문가들 역시 2016년 베트남의 경제성장 둔화가 경제기반 악화로 인한 것이 아닌 만큼, 경제 성장세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 국내 물가상승 압력 고조 등 대내외적 악재요인이 산재해 있어 베트남 정부 목표인 6.7%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 견해가 있음
  
- 베트남 경제 주요 과제로 수출 및 투자 확대 여부, 정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관건
  - 2017년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예측되고 세계 경기회복세 역시 강하지 않기에 베트남의 수출 및 투자유치 실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FDI기업을 위시한 베트남 국내기업의 수출 증대와 공공투자·투자 지출·자원개발활동 확대 여부가 2017년 베트남 경제의 성장폭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예상
- 다양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는 2017년 경제·정치적 환경에서 베트남 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대응, 극복하는지가 현 성장기조 유지 여부 관건이 될 전망

[베트남 주요경제 지표]

구 분	2012년	2013년	2014	2015	2016 (전망)	2017 전망
경상GDP(US\$억)(*)	1,553	1,712	1,859	1,914	2,030	2,144
1인당 GDP(US\$)	1,749	1,908	2,011	2,109	2,215(*)	-
경제성장률(%)	5.25	5.42	5.98	6.68	6.0	6.6
산업생산증가율(%)	8.8	9.2	7.6	9.8	7.3	7.7
연평균 인플레이(%)	9.21	6.6	4.1	0.63	2.6	3.4
환율(대달러화)	20,901	20,940	21,246	21,890	22,555	23,128
수출(억 달러)	1,145	1,322	1,500	1,624	1,707	1,956
수입(억 달러)	1,138	1,313	1,481	1,656	1,617	1,875
외환보유고(억 달러)	261	263	346	317	348	404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재정부, 중앙은행, World Bank,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주\*) 호치민 무역관 자체 산출(동화 / 및 임시 환율 적용/ 경제성장률 : 2010년 물가 대비)

## □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 가. 개황

- 베트남의 교역규모는 2007년 처음 1천억불을 넘어섰으며, 이어 4년만인 2011년에는 2천억불을 돌파, 이후 4년 만인 2015년 3천억불을 넘어섬
- 베트남 무역규모 증가는 외투기업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으며, 외투기업의 수출입 활동이 베트남의 무역적자 폭을 줄이는 역할을 함

#### <대외교역 동향>

(단위 : 억불)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 출	1,145	1,321.3	1,500.4	1,621.1	1,759.4
수 입	1,139	1,321.2	1,480.6	1,656.4	1,732.6
교역규모	2,284	2,642.5	2,981.0	3,277.5	3,492.0
무역수지	7.5	0.1	19.8	-34.3	26.8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 그러나, 장기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유지해오던 베트남의 수출액이 2015년 이래 한 자릿수를 고수하고 있어 수출성장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최근 세계 경제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와 수출제품 가격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그리고 2017년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기존의 통상환경에 변화가 예측되고, 세계경기 회복도 약세로 선진국 소비 수요가 위축될 여지가 있어 베트남의 수출 성장세는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나. 수 출

- 베트남 대외수출은 각종 전화기 및 부품, 섬유/직물제품, 신발류, 전기전자제품/부품, 신발류가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주종을 이룸
- 미국과의 무역협정 발효 직후인 2002년부터 대미 섬유/직물제품수출이 급증하여 미국이 베트남의 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
- 최근 베트남 수출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특징으로는 휴대전화가 주력 수출상품(2014년 기준 베트남 수출 1위 품목)으로 부상, 향후 베트남 수출을 주도하는 핵심 품목 및 산업으로 자리 매김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품 목 명	2013	2014	2015	2016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1,244	23,607	30,176	34,505
섬유/직물제품	17,947	20,949	22,815	23,562
전기전자제품/부품	10,601	11,440	15,610	18,480
신발류	8,410	10,340	12,011	10,480
기계/플랜트 및 부품	6,014	7,314	8,168	9,330
수산물	6,717	7,836	6,573	7,019
목제품	5,562	6,232	6,899	6,916
수송수단 및 부품	4,967	5,627	5,844	5,985
신변잡화	1,938	2,518	2,878	3,133
원유	7,278	7,229	3,720	2,347
기 타	40,674	46,054	47,418	54,185
합 계	132,135	150,186	162,112	175,942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 2016년 순위기준

<베트남의 국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순번	국가명	2013	2014	2015	2016
1	미 국	23,869	28,656	33,480	38,464
2	중 국	13,651	14,906	17,141	21,970
3	일 본	13,259	14,704	14,137	14,677
<b>4</b>	<b>한 국</b>	<b>6,631</b>	<b>7,144</b>	<b>8,932</b>	<b>11,419</b>
5	홍 콩	4,107	5,203	6,965	6,091
6	네덜란드	2,937	3,769	4,762	6,014
7	독 일	4,730	5,185	5,705	5,959
8	UAE	4,139	4,628	5,695	5,000
9	영 국	3,699	3,652	4,649	4,899
10	태 국	3,104	3,476	3,176	3,693
	기 타	52,009	58,863	57,470	57,756
	합 계	132,135	150,186	162,112	175,942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 다. 수입

- 베트남의 주요 수입품은 산업화 단계에서 요구되는 각종 기계/플랜트 및 부품 석유화학 제품, 철강제품, 원부자재 및 원료, 완제품 생산을 위한 각종 부품이 중심을 이룸
-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재고증가, 수입억제정책에 따라 2011년까지 수입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2013년~)에는 수출 원부자재, 기계류 등의 재고소진과 외국직접투자 증가에 따라 수입 증가추세가 예상됨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품 목 명	2013	2014	2015	2016
기계/플랜트 및 부품	18,687	22,500	27,594	28,085
전자제품 및 컴퓨터	17,692	18,722	23,125	27,775
각종 전화기 및 부품	8,048	8,476	10,595	10,559
의류(원단)	8,397	9,428	10,156	10,497
철강제품	6,660	7,775	7,492	8,024
플라스틱 원료	5,714	6,317	5,958	6,283
자동차 및 부품파트	2,407	3,730	6,013	5,872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3,725	4,692	5,004	5,097
기 타	60,795	66,407	69,712	71,070
합 계	132,125	148,047	165,649	173,262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의 국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순번	국가명	2013	2014	2015	2016
1	중 국	36,954	43,868	49,527	49,930
<b>2</b>	<b>한 국</b>	<b>20,698</b>	<b>21,736</b>	<b>27,614</b>	<b>32,034</b>
3	일 본	11,612	12,909	14,367	15,034
4	대 만	9,424	11,085	10,993	11,221
5	태 국	6,311	7,119	8,284	8,796
6	미 국	5,703	6,284	7,796	8,708
7	말레이시아	4,104	4,193	4,201	5,114
8	싱가포르	5,232	6,827	6,038	4,709
	기 타	32,087	34,026	22,289	37,716
	합 계	132,125	148,047	151,109	173,262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 □ 외국인 투자동향

### 가. 개황

- 2008년 665억불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09년 이후 세계경기 침체 및 베트남 국내 경제 불안에 따라 정체현상을 빚어 왔지만 2011년 이후 증자 위주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꾸준한 자금이 유입
  - 2013년 이후 연간 1500건, 2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 중이며, 2016년 2556건, 약 400억 달러 투자를 유치
  - 삼성전자는 최근 소비가전 복합단지 조성 투자액을 20억 달러로 증자 하였고 삼성디스플레이는 2014년 10억 달러 투자에서 2015년 30억 달러로 투자 증자를 하는 등, 지금까지 약 120억 달러 이상을 투자
  - LG전자는 2016년 하이퐁 지역에 OLED 및 카메라모듈 생산시설 약 20억 달러 투자를 결정

#### <연도별 외국인 對베트남 신규 투자 동향>

(단위 : 건, 백만불)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신규 투자건수	1,287	1,530	1,588	2,013	2,556
투자금액(증자포함)	16,348	22,352	20,231	22,758	39,555

자료원 : 베트남 계획투자부(MPI)

- 2007년 WTO 가입에 따라 유통업, 무역업, 요식업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한을 두었던 분야를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에 기여(단, 조건부 투자)
  - 저임의 노동력을 이용해 원부자재 수입 후 가공, 수출하는 노동집약적 공장 설립형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베트남 외국인 투자는 유통·서비스, 프랜차이즈 등으로 다원화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투자가 진행되면서 제조업 투자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 \*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 비중 : '13년(77%) → '14년(72%) → '15년 (67%) → '16.11월 (59%)

- 2015년 개정 투자법에 따라 투자 허가 분야를 명확히 하고, 투자허가 기관을 총리/시·성 인민위원회 계획투자국/공단 운영위원회로 체계화 하는 등 투자환경 지속 개선 중

## 나. 국별 투자동향

- 누계기준(투자 허가금액)으로 2016년 12월말(20일)까지 총 2만 2509건 232억불을 기록 중이며, 금액기준으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 순이며, 건 수기준으로는 한국, 일본, 대만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은 금액면, 투자 건수면에서 對베트남 최대 투자국임.
- 최근 한국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에 따른 동반진출 투자가 증가 중이며, 베트남 투자 상위국들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짐.

### <주요국별 대 베트남 투자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1988.1.1. ~ 2016. 12.20 기준 누계		2016. 1. 1 ~ 12.20		
	건수	투자액	신규건	신규투자액	증자액
<b>한 국</b>	<b>5,747</b>	<b>50,706</b>	<b>828</b>	<b>5,519</b>	<b>7,036</b>
일 본	3,280	42,058	341	868	2,590
싱가폴	1,786	37,879	210	1,591	2,419
대 만	2,509	31,569	122	826	1,860
버진아일랜드(영)	686	21,149	48	440	858
홍 콩	1,161	16,937	166	1,103	1,640
말레이시아	546	12,295	40	533	914
중 국	1,555	10,522	278	1,263	1,875
미 국	823	10,149	64	197	400
태 국	445	7,800	35	433	707
네덜란드	274	7,611	16	38	87
기타	3,697	44,572	408	2,371	3,987
<b>전체 합계</b>	<b>22,509</b>	<b>293,247</b>	<b>2,556</b>	<b>15,182</b>	<b>24,373</b>

자료원 : 베트남 계획투자부(MPI)

## V.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 한-베 교역 동향

- 양국간 교역은 2000년도에 최초로 20억불을 넘어선 이래 2010년 100억불을 돌파함. 2012년에는 200억불을 기록하였고, 2015년 300억불 달성목표를 2014년(303억 달러) 조기 달성
- 2011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2년 뒤인 2013년은 200달러를 넘어섬
- 한국은 매년 큰 규모의 흑자(2015년 11월 165억불)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 패턴이 점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수출 품목은 점차 다양화될 것으로 보이며 TPP, 한-베 FTA, AEC 등 베트남의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한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도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국의 교역량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백만불, 증가율)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 출	15,954(18.5)	21,088(32.2)	22,333(5.9)	27,771(24.2)	32,651(17.6)
수 입	5,718(12.5)	7,170(25.4)	7,989(11.3)	9,805(22.7)	12,495(27.4)
무역수지	10,236	13,917	14,344	17,965	20,156

자료원 : KOTIS

### □ 주요 수출품목

- 대 베트남 수출은 2001년 미국-베트남 무역협정 발효 이후 한국의 현지 투자 진출이 활기를 띠면서 이들 투자기업들의 각종 설비류/원부자재 수요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며, 이외에도 베트남 신도시 개발계획 추진 등 건축, 건설경기 활성화 관련 품목 수출도 증가



-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 상위 품목을 보면, 원부자재 및 자본재의 수출 비중이 소비재보다 절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최대 투자 산업인 전자, 섬유 봉제 관련 품목 비중이 높음. 주요 품목으로는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센서), 기구부품, 합성수지 제품 등임
- 최근 한류를 이용하여 미용용품, 소비재 등의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수입억제정책, 베트남 내수시장 경기침체로 기대할 만큼의 증가세는 보이고 있지 않음
- 최근 타결된 한국-베트남 FTA는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개방수준이 높고 원산지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자동차부품, 직물류의 원부자재 그리고 소형가전제품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베트남 소비재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품 목 명	2013	2014	2015	2016
무선통신기기	1,566(83.1)	2,271(45.0)	4,249(87.1)	5,192(22.2)
반도체	2,901(35.1)	2,789(-3.9)	2,871(2.9)	4,574(59.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21(60.6)	597(-46.7)	1,266(85.1)	2,512(98.4)
기구부품	927(70.3)	938(1.2)	1,233(31.7)	1,722(39.6)
합성수지	1,136(28.7)	1,188(4.6)	1,110(-6.5)	1,203(8.4)
석유제품	787(-32.7)	600(23.7)	328(-45.3)	1,088(231.2)
편직물	942(15.1)	978(3.9)	8977(-0.1)	1,077(10.3)
자동차	437(8.7)	713(63.2)	1,137(59.4)	921(-18.9)
플라스틱 제품	402(38.6)	508(26.5)	740(45.6)	864(16.9)
철강관	963(-13.0)	917(-4.7)	839(-8.4)	822(-2.1)
기 타	9,906	10,853	5,779	12,676
합 계	21,088(32.2)	22,352(6.0)	27,773(24.3)	32,651(17.6)

자료원 : KOTIS(MTI 3단위 기준) / 2016년 순위 기준

## □ 주요 수입품목

- 한국의 對베트남 주력 수입품목은 섬유제품(섬유사), IT기기, 광물성연료, 수산물, 임산물, 신변잡화 등으로 수산물, 농산물을 제외한 섬유직물제품, IT기기, 신변잡화 등 공산품 수입은 주로 현지 한국투자 기업들로부터의 역수입이 주류를 이룸
- 이중 2012년에는 베트남으로부터 의류 수입이 크게 증가해, 단일 품목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으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을 수입했으며(MTI 3단위 기준) 2014년 20억 달러를 넘어섬.
- 2016년 기준 베트남으로부터의 5대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의류, 신발, 컴퓨터, 목재류이며 총수입의 약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 이외에도 다양한 베트남 농·수·임산물 등이 한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으며, 한-베 FTA체결을 통해 보다 많은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품 목 명	2013	2014	2015	2016
무선통신기기	188(92.8)	292(55.6)	1,471(403.4)	3,145(113.9)
의류	1,683(55.2)	2,160(28.4)	2,220(2.8)	2,426(9.2)
신발	377(24.4)	506(34.2)	526(4.0)	628(19.2)
컴퓨터	72(18.5)	174(141.8)	400(130.1)	552(38.0)
목재류	232(32.4)	350(51.2)	348(-0.7)	428(23.1)
영상기기	63(2,505)	83(31.9)	150(80.7)	340(126.7)
기타섬유제품	217(27.3)	252(15.9)	272(7.8)	298(9.6)
기구부품	39(15.8)	104(167.2)	205(97.4)	268(30.7)
갑각류	126(9.4)	206(64.3)	165(-19.9)	172(29.4)
계측제어분석기	47(54.4)	136(185.5)	201(48.6)	172(-14.4)
기 타	4,131	3,727	3,845	4,066
합 계	7,175(25.5)	7,990(11.4)	9,803(22.7)	12,495(27.4)

자료원 : KOTIS(MTI 3단위 기준) / 2016년 순위 기준

## VI. 투자환경

### □ 긍정적 투자환경

- 정치사회적 안정성
  - 베트남은 중국, 인도 및 ASEAN 국가 중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베트남 공산당 1당체제일 뿐만아니라 유교문화권 국가로 종교적인 갈등이 거의 없음
-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
  - 세계에서 15번째로 많은 9500만 명, 30세이하 50%이상의 미래발전형 인구 구조를 가졌으며, 문맹율이 10%미만임
  - 여타 노동자 대비 근면성과 손재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며, 생산직 초임이 인근 국가에 비해 저렴함
- China Risk 회피를 위한 대체 생산거점
  -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국가적, 경제적 위험 발생시 안정적인 상품공급을 받기 위한 Risk 관리차원에서 베트남은 각광을 받고 있음
  - 일본기업들은 China+1의 전략하에 캐논 등 전자/부품회사들이 진출하였으며, 우리기업들은 중국에서의 비용상승과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이 비우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체지로서 베트남을 우선 검토하고 있음
- 높은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른 시장 유망성
  - 2008년 1인당 GDP 1000불대에 진입한 이후, 2014년 2000불을 넘었으며, 구매력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 2020년경에는 인구 1억명 이상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
  - WTO 가입 이후 서비스 개방 일정에 따라, 유통, 무역,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가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투자 통합법으로 내외국인 차별을 없애고, 최근 개정안을 통해 투자 수속 간소화 됨

- 적극적인 무역 및 경제 협정 참여에 따른 성장 잠재력
  - 베트남은 ATGIA(아세안상품무역협정), ACFTA(중-아세안), AKFTA(한국-아세안), AJCEP(일본-아세안), VJEPA(일본-베트남), AAANFTA(베트남-호주-뉴질랜드), AIFTA(인도-아세안), VCFTA(칠레-베트남), VKFTA(한국-베트남), VEFTA(EU-베트남) 등의 양자, 다자 FTA 체결, 관세 인하 효과 기대.
  - 이외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등의 국제무역협정 참여는 시장개방 확대에 다양한 사업 기회들이 존재

## □ 부정적 투자환경

- 인프라 부족
  - 도로, 항만, 전력 등 사회 기반시설 공급이 외국인 투자수요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서비스의 질도 매우 낮은 수준임
  - 인프라 구축비용의 대부분을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 및 공적개발 원조로 충당되고 있어, 진행 지연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 고급인력 부족
  - 하노이 및 호치민 인근을 제외하고는 외국어구사가 가능한 중간관리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채용직원 자체양성, 기숙사 제공 등 인력관리에 비용이 추가 소요됨
  - 베트남의 산업은 여전히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아 숙련되고 고등 교육을 이수한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어려우며, 특히 최근 첨단기술 및 전문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 인력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예상
- 복잡한 행정절차, 행정체제 미흡 및 커미션문화
  - 국제투명성 기구의 2014년 발표에 따르면 175개국 중 119위로 부정부패가 여전히 성행함.
  - 대부분의 거래관계에서 커미션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복잡한 행정절차에 수반하는 Under Table Money 관행도 부정적 요소임

- 최근 베트남 정부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투표를 진행 하는 등 부정 부패를 타파하려 노력 중이나 효과는 아직 미흡 수준임
  - 세부 제도 및 규정이 미흡하여 공무원 해석에 의존하여 지역별 법규 적용 차이를 보이는 등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
- 투자 및 경영비용 증가
    - 최근 몇 년간 공장건설에 필요한 토지임차료, 종업원들에 대한 인건비, 기타 물가가 큰폭으로 상승
    - 베트남 정부에서 물가억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나 경제성장 및 외국인 투자의 증가로 투자 및 경영비용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
- 부품 및 원부자재 수급 애로
    - 지금까지의 외국인 투자가 대부분 임가공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연관기반 산업이 매우 취약
    - 원부자재 수입관세가 매우 낮거나 면제된다 하더라도 원자재 적시 공급 및 물류비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
    - 국내 소재, 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지원 정책을 수립 중에 있으나, 세부 법규가 미흡하여, 아직 제한 적임
- 아직은 낮은 소비, 소비 계층의 분화 미비
    - 베트남은 저소득으로 인한 낮은 구매력과 내수 시장 미발달로 현지 시장 진출 투자는 세밀한 투자 계획 및 일정이 필요함.
    - 상대적으로 낮은 구매력과 FTA로 인한 인접국의 저렴한 상품이 공급 되면서 소비자들의 주된 구매 결정 요인은 가격이며, 소비 계층 분화도 최상류층과 일반 계층의 2단계 구조로, 한국 상품의 주 고객인 중상류층 소비자의 형성이 미흡.

## VII. 투자 입지여건

### □ 입지선정요소별 고려요소

#### ○ 물류여건

- 항만, 도로사정이 열악하며, 국내 물류시스템의 미비로 부품원자재 또는 상품의 하역, 운송 등의 물류여건이 매우 좋지 않음
- 내륙에 위치한 지역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운송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실제 방문을 해보면 물류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자주 나타남
-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기업은 원부자재 조달이 쉬운 하노이-중국 국경 간선도로주변 공단에 위치함

#### ○ 인프라 정비

- 대부분 Industrial Park는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음
- 일반 시가지나 농촌지역은 토지 임차료는 저렴하지만 인프라 건설에 예상치 못한 경비가 발생함

#### ○ 노동인력 수급

- 산업발전과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라 노동력 인력수급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함.
- 특히 주변 공장 완공시 노동력 확보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는 인건비 상승문제로 발전하게 됨

#### ○ 현지 자재와 부품조달의 용이성

- 현지 원자재 공급지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경우, 운송비용이 과다하여 채산성 확보가 어려움
- 입지 선택시 진출업종에 소요되는 부품과 자재를 인근지역에서 용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확인 필요

#### ○ 기타 고려요소

-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성
- 배후시장 여건
- 최근 대도시 인근 지역, 지방성에서 환경오염유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고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

## □ 투자지역선정

### ○ 남부지역 vs 북부지역

- 베트남 내수판매가 주목적인 경우 남부지역이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토지 임차료와 인건비가 저렴하고 노무관리가 용이한 북부지역도 검토 필요
- 부품 및 원부자재의 베트남내 조달이 어려워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분야는 중국과 가까운 북부 하노이지역 유리

<투자지역으로서의 남부/북부 비교>

구분	장점	단점
남부 (호치민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 기반(호치민, 동나이 등)</li> <li>- 자본주의적 비즈니스 관행</li> <li>- 연관산업의 발달 (특히 섬유, 신발 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상승추세(호치민 인근)</li> <li>- 노사분규의 빈번한 발생</li> <li>- 높은 토지임차료 (호치민, 동나이 등)</li> <li>- 인력확보 애로(호치민인근)</li> </ul>
북부 (하노이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렴한 토지임차료</li> <li>- 노사분규 발생률 미미</li> <li>- 근로자세 양호 (인내심, 조직 적응력)</li> <li>- 중앙정부 접촉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 정비 미흡</li> <li>- 내수시장의 규모 제한</li> <li>- 인력 수급 문제</li> <li>- 연관산업 미발달</li> </ul>

### ○ 공단지역 vs 일반지역

- 공단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고 공단관리위원회가 인허가 수속을 대행. 임차료가 비싸고 관리비를 부담해야함
- 일반지역은 공단에 비해 인프라나 사업여건이 다소 낙후되어 있으나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임차할 수 있음. 다만 토지임차료와는 별도로 임차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토지보상비를 지방정부에 지불해야함. 개인소지 토지의 경우 토지용도, 증빙서류 확인 등 행정부분에서 주의를 요함
- 외투기업의 경우 정책적으로 공단 외 지역 투자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공단 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반드시 인민위원회에 허가 가능여부 확인 한 후 투자 진행해야 함

< 공단과 일반지역 입주사의 비교 >

구분	승인기관	장 점	단 점
공단	지방정부 공단관리 위원회	- 인프라 기반 - 인허가 수속 대행 - 물류여건 양호 - 토지보상비 부담없음 - 세관입주 공단은 수출입 통관 편의	- 높은 토지임차료 - 관리비 부담
일반 지역	지방 인민위원회 기획투자부 (DPI)	- 저렴한 토지임차료 - 인력확보 용이 -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	- 인프라 정비 미흡 - 인허가 수속 직접수행 - 물류여건 낙후 - 토지보상비 부담 - 부대비용 발생 가능

○ 경제특구

- 수상이 지정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에서 남부 1개, 북부 5개를 제외한 12개 경제특구가 낙후된 중부에 집중되어 있음(2016년 등록 기준)
- 법인세 10%를 15년동안 적용, 원자재/부자재에 대하여 5년간 수입관세 면제 및 개인소득세 50% 감면 등이 있음
- 최근 지역에 따라 적용 우대혜택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전문의가 필요함

○ 입주 지역에 따른 법인세 우대사항

- 2016년 1월 1부터 일반 법인세는 20%(2015년 22%)로 낙후된 지역, 특별 낙후 지역, 하이테크 파크 입주 시에 법인세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낙후된 지역의 경우 투자 승인 후 10년간 17%적용되며, 과세이익 발생 후 2년간 법인세 면제, 추가 4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음
- 특별 낙후지역 및 경제 특구의 경우 투자 승인 이후 15년간 10% 적용되며, 과세이익 발생 후 4년간 법인세 면제, 추가 9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음



## VIII. 기타 유용한 정보

### □ 시장특성

#### ○ 상당한 시장규모와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 인구 9천만 이상에 달하는 시장규모와 연평균 6~7% 이상의 고속성장으로 시장규모 지속 확대 추세
- 2020년 후반에 인구 1억의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국으로서의 역할 기대

#### ○ 민영화 진전 불구 국영기업 파워 여전

-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 민간기업 육성 의지와 함께 1998년 5천여 개에 불과했던 민영(비국영)기업 수가 2008년도에는 19.6만여 개로 40배 가량 급증, 2013년 35.9만여개로 전체 96.4% 비중을 차지함.

#### ○ 경제력/구매력이 주요 대도시 집중

- 도/농간, 지역별 소득격차가 심해 고가 브랜드 제품 수요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베트남 평균의 2-3배 수준

#### ○ Low/High가 뚜렷한 시장

- 1인당 국민소득(GDP) 2,200불 정도에 불과하지만 두터운 고소득층이 존재하여 고가품 시장이 발달함.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은 품질보다 가격에 민감
- 소비재의 경우 인근 중국산 밀수제품의 유입으로 인해 가격경쟁이 힘든 실정이나 중국산 제품에 식상한 소비자는 점진적으로 한국산을 선호

#### ○ 높은 브랜드 선호도 및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 일반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현지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한 편
- 한류와 LG(가전제품, 화장품, 생활 용품 등), 삼성(휴대폰, 가전제품 등), 현대·기아(자동차) 등 주요기업 투자진출 및 월드컵 개최국으로서의 위상 등으로 인해 한국의 국가브랜드는 높은 편

- 유명브랜드 제품의 복제품 또는 유사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지적권 보호 등 정부차원의 규제는 미흡

#### ○ 아세안(ASEAN) 상품무역협정관세 적용

- 아세안 10개국으로부터 수입제품은 상품무역협정(ATIGA)의 적용을 받게 되어 대부분 5% 이내의 낮은 관세를 부과
- 이에 반해, 한국산 제품(특히 소비재)은 AKFTA(한-아세안, 2007년 발효), VKFTA(한-베, 2015년 발효)에 의하여 일반특혜관세(MFN)에 비하여 소수 품목에 따라 낮은 관세를 적용받지만 ATIGA에 비해서는 높은 관세 적용 대상

### □ 베트남 기후 특성

-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지형 특성상 남과 북의 기후 차이가 큰 편이며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연 평균 1,800mm 정도 기록
  - 호치민시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우기(5~10월)와 건기(11~4월)가 6개월씩 교차되며, 수도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 지역은 미묘한 4계절의 변화가 있어 연말과 연초의 기후가 한국의 늦가을 날씨와 유사
  - 북부 지역은 아열대로 연간 온도 차가 커서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차가 약 20℃에 달하는 지역도 있으나, 남부 지역은 열대 몬순기후로 연간 온도 차가 크지 않아 연간 최저 및 최고기온 차는 약 7℃ 임
- 호치민시는 전반적으로 날씨가 더우며 건기(11월-4월) 때와 우기(5월-10월)에 맞는 복장 준비 필요함
  - 건기(11월~4월) : 날씨가 매우 무더우므로 복장은 여름 복장에 모자나 양산을 준비하면 도움됨
  - 우기(5월~10월) : 거의 매일 비가 오므로 우산이나 비옷(계절라성 폭우 대비)을 준비하면 도움됨

### □ 시차 및 근무시간

- 베트남은 GMT+7 시간으로 한국보다 2시간이 늦음  
(한국이 12:00일 때 베트남은 10:00)

- 관공서와 은행은 주 5일 근무제(월~금)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기업체들은 보통 토요일에도 근무
  -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관공서의 경우 07:30~16:30이며, 일반 기업체는 08:00~17:00임
  - 점심시간은 대개 11:30~13:00 또는 12:00~13:30이며, 점심시간 동안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오침
- 상점과 식당 등 업소의 영업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08:00에서 22:00까지며, 야간 업소의 경우 24:00까지 영업

## □ 현지활동 참고사항

- 출입국
  - 한국인은 베트남 출국 항공권 및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을 소지 한 경우 15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하지만, 무비자 입국 후에는 현지에서 연장이 불가하며, 30일내 무비자 재입국이 불가함.
  - 최근 개정된 출입국법에 따르면 15일의 무비자 체류기간 만료 시 최대 15일 연장 가능(여행사 신원보증 필요)
  - 미화 5000불 이하 소지 출입국 가능
- 시내교통
  - 호치민시에는 지하철(공사 중, 2018년 개통 예정)이 없으며 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노선버스가 발달되어 있지 않음
  - 외국인이 용이한 이동 수단은 택시로 요금은 미터제로서 기본요금은 11,000~12,000동으로 회사마다 다소 상이함 (공항에서 시내까지 약 18만동 : 9불 수준)
  - 기본적으로 콜택시(별도 추가 요금없음)로 건물, 호텔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으며, 주요 택시회사로는 Mai Linh(녹색바탕, 38383838 번호 표시)택시와 VINASUN(하얀 바탕, 하부 녹색, 38272727 번호 표시) 택시가 있음
  - 최근에는 Grab, Uber Vinasun, Ma Linh 등 택시회사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부르는 것이 가능

- 환전 및 신용카드
  - 화폐 단위 : Vietnam Dong(동, VND로 표기)
  - 화폐종류 : 지폐로는 오백동, 천동, 이천동, 오천동, 만동, 이만동, 오만동, 십만동, 이십만동, 오십만동이 있으며, 모든 지폐에는 호치민 초상이 있음
  - 시내 도처에 있는 환전소나 은행에서 달러를 베트남 동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으며, 최근 은행과 환전소의 환율이 다소 엇비슷해짐
  - 현지 가게 및 식당에서도 달러 통용이 가능하므로 많은 금액을 현지화로 바꿀 필요는 없음
  - 호텔과 고급식당이외에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대부분임
  
- 위생 및 질병
  - 석회질이 다량 포함된 현지 수돗물 대신 생수사용을 권함
  - 식당에서 음료, 맥주를 시키면 얼음을 넣어 주는데 고급식당이 아닌 경우 얼음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
  - 고열을 동반하는 열성 급성질환인 뎅기열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
  
- 치안상태
  - 베트남의 치안상태는 매우양호한 편이나 보행 중 오토바이 날치기사건이 빈번함을 유의바람
  - 야간에는 단독 행동을 삼가고 골목길을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
  - 매춘, 마약, 도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절대 금물
  
- 팁 관행
  - 베트남에는 팁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택시 이용시 별도의 팁을 줄 필요는 없음
  - 벨보이나 호텔메이드에게 2만동(1불정도)을 주는 것이 관행임

## □ 기타 주의 사항

### ○ 선교활동 금지

- 베트남에서 모든 외국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나, 베트남의 풍속 및 관습에 심하게 위반되는 종교집회 또는 노상의 종교활동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엄격하게 통제를 받음
- 특히 외국인의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또는 포교행위는 절대 금하고 있으며, 발각 시 추방 등 강경제재 조치를 받게 됨

### ○ 관공서 관행

- 베트남 관공서의 업무처리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에게 환영 받지 못함. 다수의 현지 외국인의 경우 투자 및 무역과 관련된 서류 등을 처리하게 되는데 잦은 서류 보완 요청, 고자세 및 불친절 등으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음

## 참고1 호치민 식당 정보 및 주요 관광지

### □ 한식당

식당명	주 소	전 화
예가 (한식, 중식)	13th Fl Diamond Plaza, 34 Le Duan st, Dist.1	(84-8)3824-8596
대장금 (한식, 중식)	1st Fl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Dist.1	(84-8)3825-7974
한누리 (한식, 활어회)	11A Ton Duc Thang st, Dist.1	(84-8)3829-4855
대어 (활어회)	11B Ngo Van Nam st, Ben Nghe ward, Dist.1	(84-8)3822-1336
아리랑 (한식)	11-13 Cong Truong Lam Son, Ben Nghe Ward, Dist 1	(84-8)3823-1983
큰대문 (한식)	6B Pham Ngoc Thach Dist. 1	(84-12)6228-1592

### □ 베트남식당

식당명	주 소	전화
Maxim's Nam An	13-15-17 Dong Khoi St, Dist.1	(84-8)3829-6676
Ngoc Suong(해산물)	172 Nguyen Dinh Chieu st, Dist.1	(84-8)3930-2379
Mandarin	11A Ngo Van Nam St, Dist.1	(84-8)3822-9783
Hoi An	11 Le Thanh Ton St, Dist.1	(84-8)3823-7694
Tib	187 Hai Ba Trung, Dist.3	(84-8)3829-7242
Quan An Ngon	160 Pasteur st, Dist.1	(84-8)3827-7131
Pho 2000(쌀국수)	1-3 Phan Chu Trinh st, Dist.1 (2nd Floor)	(84-8)3822-2788
Pho Hoa(쌀국수)	260c Pasteur St, Dist.3	(84-8)3829-7943

## □ 호치민 인근 주요 관광지

구분	사진	주요 포인트	거리
<b>통일궁</b> (Hoi Truong Thong N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5 Nam Ky Khoi Nghia, Dist 1, HCMC</li> <li>▪ 과거 남베트남(자유진영)의 대통령궁으로</li> <li>▪ 현재는 개방되어 관광지, 회의장소로 사용</li> <li>▪ 7:30~11:00, 13:00~16:00 개장(연중무휴)</li> <li>▪ 관람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1시간 소요</li> <li>▪ 입장료(성인) : 30,000VND(약 1.5불)</li> </ul>	호치민 시내 (10분)
<b>전쟁 박물관</b> (Bao Tang Chien Tran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8 Vo Van Tan, Dist 3, HCMC</li> <li>▪ 프랑스 식민지배 당시 단두대를 비롯해 베트남 전쟁 때 사용되었던 각종 유물 전시</li> <li>▪ 고엽제 피해 및 전쟁의 잔학상을 고발하는 수많은 화보가 있음</li> <li>▪ 7:30~12:00, 13:30~17:00 개장(연중무휴)</li> <li>▪ 입장료 : 15,000VND(0.8USD)</li> </ul>	
<b>호치민 박물관</b> (Ben Nha Ro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Nguyen Tat Thanh, Dist 4, HCMC</li> <li>▪ 호치민이 생전에 사용하던 각종 유물 전시</li> <li>▪ 프랑스와 중국의 건축양식을 조화시켜 1863년에 완공했으며 한 때 프랑스 총독부 영빈관으로도 사용</li> <li>▪ 7:30~11:30, 13:30~17:00 개장(화~토)</li> <li>▪ 입장료 : 2000VND</li> </ul>	
<b>노틀담 성당</b> (Nha tho Duc 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Cong xa Paris, Dist 1, HCMC</li> <li>▪ 1880년에 세워진 호치민 시 최대성당</li> <li>▪ 프랑스 식민지배 당시 건축자재를 모두 프랑스에서 공수해 파리 노틀담 성당을 본떠 만들</li> <li>▪ 8:00~10:00, 15:00~16:00 개장(매일)</li> </ul>	
<b>다이아몬드 플라자</b> (Diamond Plaz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4 Le Duan, Dist 1, HCMC</li> <li>▪ POSCO가 지은 호치민시 랜드마크 빌딩</li> <li>▪ 1~층은 백화점이며 나머지는 오피스 및 아파트</li> <li>▪ KOTRA호치민 무역관 7층 입주</li> </ul>	
<b>비텍스코</b> (Bitex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Hai Trieu, Dist 1, HCMC</li> <li>▪ 현대건설이 지은 초고층(68층) 빌딩</li> <li>▪ 스카이라운지를 통해 호치민시를 한 눈에 조망가능</li> <li>▪ 라운지입장료 : 200,000 VND(9USD)</li> </ul>	

<p><b>벤탄 시장</b> (Cho Benthan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 Loi, HCMC</li> <li>▪ 유명한 재래시장으로 전통적 관광명소</li> <li>▪ 의류부터 식료품까지 다양한 제품 판매</li> <li>▪ 저녁 7시 이후 주변에 야시장(식당, 기념품)이 열림</li> </ul>	
<p><b>사이공 스퀘어</b> (Saigon Sqau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7~89 Nam Ky Khoi Nghia, Dist 1</li> <li>▪ 7 Ton Duc Thang, Dist 1, HCMC</li> <li>▪ 176~181 Hai Ba Trung, Dist 1, HCMC</li> <li>▪ 우리나라의 밀리오레와 유사한 쇼핑센터</li> <li>▪ 명품 이미테이션 등을 주로 판매</li> </ul>	
<p><b>구찌 터널</b> (Dia Dao Cu C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u Chi Dist, HCMC</li> <li>▪ 베트남 전쟁 당시 게릴라전에 사용된 터널</li> <li>▪ 현재는 관광용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당시 보다는 터널 크기를 다소 크게 조정한 상태</li> <li>▪ 입장료 : 약 15불 소요</li> </ul>	<p>5시간 (왕복)</p>
<p><b>메콩 델타</b> (Mekong Delt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최대의 곡창지대 (벼의 3모작 가능)</li> <li>▪ 조그만 배를 타고 메콩 델타의 곳곳을 구경한 후 간단한 기념품 구매 가능</li> <li>▪ 투어 비용 : 약 20불(호치민시 여행자 거리 출발)</li> <li>▪ 여행자 거리 : Pham Ngu Lao st, De Tham st, Dist 1, HCMC</li> </ul>	<p>5시간 (왕복)</p>